

제32권 제3호 2016년 9월 30일

Journal of the KRSA

vol.32, no.3, 2016 pp.3-15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

-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여 -*

조민지** · 임업***

The effect of income - mix on place attachment as civic pride in Seoul - Using the Seoul Survey -*

Minji Cho**, Up Lim***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은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사회적 혼합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어 장소애착심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서베이」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과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장소애착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 가운데 '시민 자부심'을 통하여 장소애착심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혼합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자부심으로서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소득수준이 조절변수로 기능하여, 지역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소애착심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적 혼합정책을 계획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소득혼합수준, 시민 자부심, 장소애착심, 서울서베이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come-mix on place attachment as civic

*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minjicho@yonsei.ac.kr)

*** 본 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uplim@yonsei.ac.kr)

pride in Seoul. Place attachment and social mix are considered important in urban planning. However, place attachment is frequently thought to form more strongly in the homogeneous area. On the other hand, social mix policy is aimed to form more heterogenous area. So, the two concepts are thought to be incompatible. This paper focused on the income-mix which is kind of social mix, and used the 2013 「Seoul Survey」 and 2010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data. Based 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we used the civic pride in Seoul as the indicator of place attachment.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the degree of income-mix increases, place attachment in Seoul also increases. Also, it appears that as regional income levels get higher, the effects of income-mix on place attachment decrease.

Key Words : Income-mix, Civic pride, Place attachment, Seoul Survey

1. 서론

장소에착심(place attachment)은 장소라는 공간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인 환경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장소에 대해 형성하게 된 긍정적인 감정이다(Shumaker et al., 1983; Giuliani, 2003). Scannell et al.(2010)에 따르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각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애착심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장소애착심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 형성 및 유지되며, 이는 다시 개인의 삶의 질이나 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에 있어 장소애착심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해당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을 반영하는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Twigger-Ross et al., 1996; Hidalgo, 2001). 또한 장소애착심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상호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Stokols et al., 1981; Scannell et al., 2010).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 정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의 계층적 분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사회적 혼합 정책들이 제시되었다(박근석, 2010; 이해진 외, 2012). 사회적 혼합은 사회적 약자들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절감시키고, 상이한 집단이 서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Galster, 2013). 하지만 장소애착심은 보다 동질적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형성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합 정책과 장소애착심 제고를 위한 정책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Livingston et al., 2008).

장소에착심과 사회적 혼합은 지역계획 및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요소인 만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하지만,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연구는 계층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혼합이 아닌,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혼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Bailey et al., 2012), 국내의 맥락에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관광, 축제, 휴양단지 등 특별한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애착심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윤유식 외, 2005; 배만규 외, 2009; 오정학 외, 2009; 안현영 외, 2013), 최근에 이르러 일상적인 공간과의 상호작용 과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소와 사람 사이의 유대감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나(김동근, 2008; 김동근, 2011; 조위래, 2012), 사회적 혼합수준과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나타내는 개념적 기초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라는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세부적인 거주 지역 단위인 자치구의 사회적 혼합수준에 따라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 혼합 이슈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구성요소인 소득수준에 대한 사회적 혼합(income mix)에 초점을 두어(Galster, 2013),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지역의 평균소득'을 도입하여, 거주지역의 평균소득이 소득혼합수준과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장소애착심과 시민 자부심

사람과 공간 사이의 관계(people-place relationship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장소애착심에 대

한 논의는 도시 및 지역계획뿐만 아니라 지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주목받고 있다(Brown et al., 2003; Hidalgo et al., 2001; Scannell et al., 2010). 특히 장소애착심은 생존(survival)에 있어서의 이점과 개인의 보안(security)을 구축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며, 자기조절 능력(self-regulation)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목표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Bowlby, 1969; Shumaker et al., 1983; Korpela, 1989).

하지만, 장소애착심의 다면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장소애착심은 커뮤니티 애착심(community attachment),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Twigger-Ross et al., 1996; Hidalgo et al., 2001). Scannell et al.(2010)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장소애착심의 개념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적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Scannell et al.(2010)는 장소애착심을 크게 사람(person),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 장소(place)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공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장소애착심의 다면적인 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소애착심의 의미는 단일한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소애착심을 조작적 정의하는 방법도 거주기간(Riger et al., 1981),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Hay, 1988; Lalli, 1992), 근린에 대한 유대감(Riger et al., 1981)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장소애착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질문 문항들을 사용하고 있는데(Lewicka, 2011), Shamai et al.(2005)와 같이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단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장소애착심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가 있는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한 착근성(rootedness)과 유대감 등 장소애착심과 관련한 다차원적 설문문항을 종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소애착심을 측정하는 연구도 존재한다(Riger et al., 1981;

Stokols et al., 1983).

거주 지역에 대한 시민 자부심 역시 사람과 공간 사이의 심리적 유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장소애착심의 다면적인 측면 중 하나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Mesch et al.(1998)는 장소애착심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 중 하나로 '특정 근린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proud of living in the neighborhoods)'을 포함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인 '시민 자부심'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다.

2)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수준

사람들은 장소애착심을 통해 그룹 내 구성원들과 유사성을 유지하려 함과 동시에 그룹 외부의 사람들과 구분되려고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정의(self-definition)를 하게 된다(Brewer, 1991). 이와 동시에, 그룹 내 이질성이 큰 집단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 사회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확장되고(Buck, 2001; Pinkster, 2009),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Bailey et al., 2012).

사회적 혼합수준이 높을수록 장소애착심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혼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통합력, 응집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내 구성원이 배경, 종교, 관심사, 삶의 방식 등에 있어 동질적인 특성을 지닐수록 장소애착심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한다(Gans, 1962; Shaw et al., 1942). 한편, 장소에 대한 애착심은 해당 장소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도 존재한다(Stokols et al., 1981; Scannell et al., 2010). 이들의 논의는 거주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기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낮은

사회적 혼합수준은 보다 나은 역할모델(role model)의 부재와 협소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어지게 되어, 근린 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se et al., 1991; Oberwittler, 2007). 즉, 거주지역의 사회적 혼합수준이 낮을수록 해당 장소에 대한 애착심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을 대상으로 하여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수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Livingston et al.(2008)는 연령, 현 주소지 거주기간 등 장소애착심을 설명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에 비하여 사회적 혼합수준의 영향은 미미함을 강조하며, 사회적 혼합수준은 장소애착심을 결정하는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Bailey et al.(2012) 또한 사회적 혼합수준과 장소애착심 사이의 실증적인 결과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변수 및 연구 모형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의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서베이」를 기초로 한다. 「서울서베이」는 구·동·주택유형을 토대로 한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및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3년 「서울서베이」는 총 20,000 가구의 가구주와 47,384명의 가구원을 통해 가구현황조사 및 인구, 경제, 문화, 가치와 의식 등 각종 분야별 지표에 대하여 조사되었다(서울특별시, 2014).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구소득수준과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점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문항이 포함된 2013년 「서울서베이」의 가구주 대상 설문결과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자치구별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과 지역별 평균가구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0년 「가구통행 실태조사」 자료는 수도권 내 가구의 현황 및 가구원의 특성, 개인별 통행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변수의 자료인 「서울서베이」와 시간적 범위가 일치하는 2013년의 지역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2013년과 가장 가

까운 년도의 「가구통행실태조사」인 2010년 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3년 사이의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¹⁾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응용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통계적 처리

구분	변수명	통계적 처리	자료출처
종속변수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서울서베이 (2013)
설명변수	소득혼합수준	자치구별 소득분위혼합수준	가구통행 실태조사 (2010)
	지역평균소득	자치구별 평균가구소득 (단위: 만원)	
	소득혼합수준*지역평균소득	소득혼합수준과 지역평균소득의 상호작용 변수	
통제변수	성별	남자=1	서울서베이(2013)
		여자=0	
	연령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연령	
	교육년수	초등학교 졸업=6	
		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졸업=12	
		대학(전문대) 졸업=14	
		대학교 졸업=16	
		대학원수료/졸업=20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	전혀 신뢰 안함=1	
		별로 신뢰 안함=2	
		보통=3	
		약간 신뢰=4	
		매우 신뢰=5	
	주거점유형태	자가=1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기타=0	
주관적 행복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		
현주소지 거주년수	현주소지에 거주한 기간		
가구소득수준	가구별 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원)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보행환경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보통이다=3	
		약간 만족=4	
		매우 만족=5	
	범죄정도	매우 심각하다=1	
	소음정도	심각하다=2	
쓰레기방치	심각하지 않다=3		
주차환경	전혀 심각하지 않다=4		

을 통해 소득혼합수준과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지역평균소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²⁾ 분석모형은 소득혼합수준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모형(모형 1), 첫 번째 모형에 지역평균소득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평균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모형 2), 그리고 지역별 평균가구소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혼합수준과 지역평균소득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모형(모형 3)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자치구별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 지역평균소득,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성별, 연령, 교육년수, 현주소지 거주년수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함께,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주관적 행복감,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등 개인 및 지역에 대한 심리 변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2013년 「서울서베이」의 가구주 대상 설문조사 항목 중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측정 지표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방법과 통계적 처리 과정 및 자료출처는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이다. 거주지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측정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서울서베이」의 가구 대상 설문 문항 중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항목을 활용하였다(Mesch et al., 1998). 2013년 「서울서베이」에서는 '귀하는 서울시민 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100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³⁾

(2)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자치구별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 지역별 평균가구소득,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가구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지수중에서, Shannon et al.(1949)의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를 활용하였다. 엔트로피지수는 각 유형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인종, 산업, 토지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혼합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임하나, 2015). 하지만 엔트로피지수는 유형의 개수에 따라 최댓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식은 식 (1)과 같다.

$$Entropy_i = \frac{\sum_{j=1}^6 (P_{ij} \times \ln P_{ij})}{\ln 6} \quad (1)$$

P_{ij} = 지역 i 에서 소득분위 j 가 차지하는 비율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는 소득을 6개의 분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각 소득계층이 어느 정도 혼합되어있는지 측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을 산정하였다. 해당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특정 지역 내에 각 소득분위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혼합수준 변수와 지역평균소득 변수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를 거친 두 변수 사이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은 2013년 「서울서베이」에 기초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개인수준 변수로 포함된 성별 변수는 여자를 기준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연령 변수는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하는 출생연도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3년 기준

응답자의 나이를 추정하여 구축되었다. 교육년수 변수는 서열척도(ordinal measure)로 측정된 「서울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학력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년수를 계산하여 구축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수준 변수도 서열척도로 측정된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속변수로 구축하였다. 또한 주택소유형태 변수는 자가 아닌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고, 현주소지 거주년수,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주관적 행복감,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의 변수의 경우에는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하는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착심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10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고, 최솟값은 10점, 최댓값 100점이었으며, 평균은 74.89점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시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인 소득혼합수준의 평균은 0.887, 최솟값은 0.862, 최댓값은 0.912로,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값들은 대부분 고르게 나타났으나, '가구주'라는 응답자의 특성상 여성 응답자에 비해 남성 응답자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 또한 50대 정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20,000명의 가구주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장소애

2)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3가지 위계적 모형 간 통계량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평균소득, 지역평균소득과 소득혼합수준의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됨에 따라 조절된 결정계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 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평균소득이 소득혼합수준과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 사이의

<표 2> 기술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	20,000	74.891	9.827	10	100	
소득혼합수준	20,000	0.887	0.016	0.862	0.912	
지역평균소득	20,000	319,030	46,666	257,182	445,065	
소득혼합수준*지역평균소득	20,000	283,413	44,500	222,087	405,398	
성별	20,000	0.843	0.364	0	1	
연령	20,000	50.770	13.027	19	94	
교육년수	20,000	13,364	2,653	6	20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	20,000	3,169	0.886	1	5	
주거점유형태	20,000	0.520	0.500	0	1	
주관적 행복감	20,000	71.751	12,095	2	100	
현주소지 거주년수	20,000	7,552	6,808	1	78	
가구소득수준	20,000	381,458	161,105	25	800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보행환경	20,000	3,641	0.677	1	5
	범죄정도	20,000	2,817	0.726	1	4
	소음정도	20,000	2,930	0.717	1	4
	쓰레기방치	20,000	2,831	0.757	1	4
	주차환경	20,000	2,752	0.792	1	4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설명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이 증가할수록 시민 자부심으로서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은 두 번째 모형에서는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과 부(-)의 관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번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혼합수준과 지역의 평균소득의 상호작용 변수는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과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득혼합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의 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혼합수준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는

<표 3> 모형 간 통계량 변화량 비교

모형	R ²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ΔR ²	ΔF
모형 1	0.153	0.152	9.049	0.153	257.217***
모형 2	0.153	0.152	9.048	0.000	7.599*
모형 3	0.154	0.153	9.042	0.001	26.035***

※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표 4> 실증분석결과

변수명	모형 1 (표준화된 회귀계수)	모형 2 (표준화된 회귀계수)	모형 3 (표준화된 회귀계수)	
상수항	43.157***	43.005***	43.078***	
설명변수				
소득혼합수준	18.048*** (0.030)	23.573*** (0.039)	22.171*** (0.036)	
지역평균소득		-0.004*** (-0.021)	0.000 (-0.001)	
소득혼합수준*지역평균소득			-0.419*** (-0.039)	
통제변수				
성별	-0.445** (-0.016)	-0.464** (-0.017)	-0.491** (-0.018)	
연령	-0.002 (-0.002)	-0.001 (-0.001)	-0.001 (-0.002)	
교육년수	0.203*** (0.055)	0.207*** (0.056)	0.210*** (0.057)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	0.603*** (0.054)	0.588*** (0.053)	0.585*** (0.053)	
주거점유형태	-0.402*** (-0.020)	-0.416*** (-0.021)	-0.420*** (-0.021)	
주관적 행복감	0.264*** (0.324)	0.264*** (0.325)	0.262*** (0.323)	
현주소지 거주년수	0.047*** (0.033)	0.047*** (0.033)	0.048*** (0.033)	
가구소득수준	0.002*** (0.032)	0.002*** (0.035)	0.002*** (0.036)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보행환경	1.133*** (0.078)	1.143*** (0.079)	1.167*** (0.080)
	범죄정도	0.173** (0.013)	0.185* (0.014)	0.193** (0.014)
	소음정도	0.446*** (0.033)	0.442*** (0.032)	0.459*** (0.033)
	쓰레기방치	0.465*** (0.036)	0.465*** (0.036)	0.455*** (0.035)
	주차환경	0.186** (0.015)	0.188** (0.015)	0.204** (0.016)
F-statistics	257.217***	240.655***	227.524***	
R ²	0.153	0.153	0.154	
Adjusted R ²	0.152	0.152	0.153	

※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것이다. 이는 장소애착심이 형성될 수 있는 기제 중에서 '개인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혼합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신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이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의 평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혼합수준의 증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가 감소하며, 오히려 사회적 혼합도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이질성이 증가하여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소득혼합수준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교육년수,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 주관적 행복감, 현주소지 거주년수, 가구 소득수준,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는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자자인 사람에 비해 월세 또는 전세인 사람이 서울에 대한 애착심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거주 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을 보이기 때문에 높은 애착심을 형성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Hidalgo et al., 2001),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소애착심의 한 차원인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Baum et al., 2010; HannsScott, 2015). 또한 현 주소지에서의 거주년수는 장소애착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며,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그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Kasarda et al., 1974; Giuliani, 2003; 최열 외, 2005). 이외에도, 장소애착심을 결정

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최열 외(2005)에서는 이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환경의 쾌적성이 높을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Hidalgo et al. (2001)은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장소애착심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통제변수들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장소애착심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령은(Woolever, 1992; Hidalgo et al., 2001; Scharf et al., 200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서울서베이」의 응답자가 가구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에서 야기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의 는 0.153수준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거주지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요인을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alster et al., 1981; Choi, 1993; 최열 외, 2005).

5. 결론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또는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의 정도는 해당 도시에 대한 평판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기능한다(이용진 외, 2010; 임근식, 2012). 특히, 장소애착심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법 중 지역에 대한 시민 자부심 역시 그들의 장소애착심이 반영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Mesch et al., 1998)). 장소애착심과 마찬가지로 지역계획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혼합 정책들은 취약계층의 집중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외부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Ginther et al., 2000; Oberwittler, 2007; Galster,

2013). 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통합 또는 응집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장소애착심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Gans, 1962; Shaw et al., 1942).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 수준 사이의 관계가 적거나, 사회적 혼합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더욱 높은 애착심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 수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Lees, 2008; Bailey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과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서베이」자료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심리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지역의 소득혼합수준과 서울이라는 한 장소에 대한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소득혼합수준이 증가할수록 시민 자부심으로서 서울시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지역의 평균소득 정도에 따라 조절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지역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소득혼합수준과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 사이의 정(+)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에 따라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세부 공간 단위인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장소애착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 이들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장소애착심과 지역의 소득혼합수준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서울시민의 장

소애착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적 혼합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로 한정된 서울시의 경우, 2011년 이후 사회적 혼합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오정석 외, 2013).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혼합 수준과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평균소득 수준 등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혼합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정책의 다양한 구성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소득의 혼합 수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혼합 정도와 해당 지역의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향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 1) 통제변수를 구축하는데 있어 2010년 「서울서베이」를 활용한다면 자료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2010년 「서울서베이」 자료는 장소애착심을 설명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 변수와 자치구 수준에서 구한 지역 수준의 변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다층분석방법(multilevel model)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나, ICC가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아 다층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Lewicka(2011)에 따르면, 장소애착심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산정된 장소애착심에 관한 논의가 각 연구에 따라 어떠한 공통적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소애착심의 다면적인 속성 중에서 '시민 자부심'을 통해 장소애착심을 측정하는 연구라는 점을 유념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근, 2008, 주거지역의 장소애착형성에 관한 연구: EM 및 HLM을 이용한 다수준 영향요인의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근, 2011, 단기 주거에서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 대학교 기숙사생 및 자취생을 대상으로, 『도시설계학회지』 12(5), pp.79-90.
- 박근석, 2010, 소셜 믹스의 문제와 향후 방향, 『건축』, 54(7), pp.18-20.
- 배만규 · 오순환, 2009, 축제의 장소 정체성, 『관광학연구』, 33(1), pp.31-51.
- 서울특별시, 2014, 『2013 서울서베이(Seoul Survey)』, 서울.
- 안현영 · 서철현 · 조우용, 2013, 축제 관계자가 지각하는 지역 애착심이 축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8(1), pp.189-203.
- 오정학 · 윤유식, 2009, 지역에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 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4(5), pp.275-295.
- 윤유식 · 광용섭, 2005, 관광일반부문: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심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pp.511-525.
- 이용진 · 한은경, 2010, 도시평판의 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87), pp.392-415.
- 이혜진 · 이수진 · 이연숙, 2012, 사회적 혼합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인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2), pp.1-14.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pp.47-89.
- 임하나, 2015,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의 개발과 유용성 검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위래, 2012,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열 ·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pp.39-50.
- Bailey, N., Kearns, A., Livingston, M., 2012, Place attachment in deprived neighbourhoods: the impacts of population turnover and social mix, 『Housing Studies』, 27(2), pp.208-231.
- Baum, S., Arthurson, K., Rickson, K., 2010, Happy people in mixed-up plac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and type of local socioeconomic mix and expressions of neighbourhood satisfaction, 『Urban Studies』, 47(3), pp.467-485.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pp.475-482.
- Brown, B., Perkins, D. D., Brown, G., 2003, Place attachment in a revitalizing neighborhood: Individual and block levels of analysi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3), pp.259-271.
- Buck, N., 2001, Identifying neighbourhood effects on social exclusion, 『Urban studies』, 38(12), pp.2251-2275.
- Case, A. C., Katz, L. F., 1991, The company you keep: The effects of family and neighborhood on disadvantaged youths (No. w37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hoi, Y. ,1993, Residential housing satisfaction as a social indicator,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Galster, G. C, Hesser, G. W., 1981, Residential satisfaction compositional and contextual correlates, 『Environment and behavior』, 13(6), pp.735-758.
- Galster, G., 2013, Neighborhood social mix: Theory,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lanning, 『Policy, planning and people: Promoting justice in urban development』, pp.307-336,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ans, H. J., 1962, 『The Urban Villagers: Group and Class in the Life of Italian-Americans』, Glencoe, IL: Free Press.
- Ginther, D., Haveman, R., Wolfe, B., 2000,

- Neighborhood attributes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outcomes: how robust are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Human Resources』, pp.603-642.
- Giuliani, M. V., 2003, Theory of attachment and place attachment, 『Psychological theories for environmental issues』, pp.137-170, Aldershot: Ashgate.
- Hannscott, L., 2015, Individual and contextual socioeconomic status and community satisfaction, 『Urban Studies』, pp.1-18.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1), pp.5-29.
- Hidalgo, M. C.,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pp.273-281.
- Kasarda, J. D.,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pp.328-339.
- Korpela, K. M., 1989, Place-identity as a product of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3), pp.241-256.
- Lalli, M., 1992,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4), pp.285-303.
- Lees, L., 2008, Gentrification and social mixing: towards an inclusive urban renaissance?, 『Urban Studies』, 45(12), pp.2449-2470.
-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pp.207-230.
- Livingston, M., Bailey, N., Kearns, A., 2008, 『People's attachment to place: The influence of neighbourhood deprivation』,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Joseph Rowntree Foundation.
- Mesch, G. S., Manor, O., 1998, Social Ties,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Local Attach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30(4), pp.504-519.
- Oberwittler, D., 2007, The effects of neighbourhood poverty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urs: A multi-level analysis differentiated by gender and ethnicity, 『Housing Studies』, 22(5), pp.781-803.
- Pinkster, F. M., 2009, Living in concentrated povert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 Riger, S. and Lavrakas, P. J., 1981, Community Ties: Attach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1), pp.55-66.
- Scannell, L.,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pp.1-10.
- Scharf, T., Phillipson, C., Smith, A., 2003, Older people's perceptions of the neighbourhood: evidence from socially deprived urban area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8(4), Available at <http://www.socresonline.org.uk/8/4/scharf.html> (accessed 11 November 2011).
- Shamai, S., Ilatov, Z., 2005, Measuring sense of place: Methodological aspect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6(5), pp.467-476.
- Shannon, C. E., Weaver, W.,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aw, C. R.,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umaker, S. A.,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place, 『Environmental

-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pp.219-251.
- Stokols, D.,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pp.441-488.
- Stokols, D., Shumaker, S. A., Martinez, J., 1983, Residential Mobility and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pp.5-19.
- Twigger-Ross, C. L., Uzzell, D. L., 1996, Place and identity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3), pp.205-220.
- Woolever, C., 1992, A contextual approach to neighbourhood attachment, 『Urban Studies』, 29(1), pp. 99-116.

게재신청 2016.04.14

심사일자 2016.04.20

게재확정 2016.07.05

주저자: 조민지, 교신저자: 임엽